



임기영

‘완장 책임감’ 임기영 “팀 순위 올리기 먼저”

임시주장 맡은 뒤 KIA 6연승 볼넷 줄이자 이긴 경기 많아져 상승세 7월 리그 중단 아쉬워

‘책임감’이 임기영의 2021시즌을 만든다.

1년 만에 임기영의 자리가 많이 달라졌다. 지난 12월 결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무게감이 더해졌고, 양현종의 해외진출과 멧텐·브룩스의 부상으로 ‘에이스’ 자리를 맡아야 했다. 최근에는 ‘임시주장’ 역할까지 더해졌다.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바쁜 전반기를 보낸 임기영은 “초반 몇 경기를 빼고 꾸준히 한 게 괜찮았다”고 자평했다.

꾸준함의 원동력은 ‘빠른 승부’였다.

임기영은 “그 전에 사사구가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 치라고 던졌다”며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도 카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다. 초구에는 크게 보고 던지고, 투스트라이크 이후 유리할 때는 더 집중해서 던졌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변화의 바탕이 된 ‘볼넷’은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기영은 “초반에 투수들이 볼넷이 많았다. 더블헤더도 있고 야수들, 시합 보러 오신 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애들한테 볼넷 하나씩만 줄여보자고 했다. 나도 애들한테 한 말

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확실히 볼넷이 적을 때 이긴 경기가 많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6·7월 6경기에서 6개의 볼넷만 내주며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상승세를 탄 5월 성적까지 더하면 66이닝에서 3.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도 찍었다.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7일 한화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도 기록했지만 올 시즌 승수는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기영은 자신의 승보다 팀의 순위를 먼저 말한다.

임기영은 “처음에는 볼넷에서 승리 날리고 눈치 보면서 미안하다고 했었다. 그럴 때마다 ‘다음에 더 날릴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벌금 내라’고 했다(웃음)”며 “승은 신경 안 쓰고 있다. 퀄리티스타트도 몇 경기 연속이었는지 신경 안 쓰고 있었다. 그래도 NC전(6월 29일) 5회 던지고 끝날 때는 아쉽기는 했다. 내 승리보다는 팀이 이겨서 순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임시 주장’ 이후 만들어진 팀의 연승이 임기영에게는 감사하다. 임기영은 “공교롭게 내가 임시주장을 하고 나서 팀이 6연승을 했다. 아마추어 때도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옆에서 좋게 말씀 해주셨고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데 피할 수만은 없어서 한번 해보았는데 그 뒤로 팀이 계속 이기니까 좋았다”고 말했다.

임기영에게는 누구보다 ‘책임감’의 의미를 잘 아는 선배 양

현종이 큰 힘이 있다.

임기영은 “(이)리도 신인인데 잘 해주고, (김)유신이 같은 후배들이 던지고 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 현종이 형도 내가 던지고 내려오면 많이 해줬다. 현종이 형한테 배운 것들을 하려고 한다. 큰 자리가 빠진 만큼 책임감도 생겼다”며 “임시 주장을 하고 나서도 현종이 형에게 많이 물었다. ‘지금처럼 똑같이만 하라고, 더 욕심내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밝혔다.

상승세의 7월이었던 만큼 리그 중단은 아쉽다. 하지만 선수들 모두 한 마음으로 뜨거운 후반기 준비하고 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선수단 휴식일이었지만 임기영은 휴가 마지막 날에도 야구장에 나가 훈련을 했다.

임기영은 “7월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하던 대로 준비하고 최대한 좋았던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괜히 불안한 마음도 있고 좋으니까 유지하려고 경기장에 나오게 된다. 다들 마찬가지로. 재할 선수들 오면 팀이 더 좋아질 것이다. 또 누가 올라오게 되면 내려가기가 싫어서 다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등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7, 8월에 항상 안 좋아서 질문을 많이 했었다.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좋은 여름 보내고 싶다. 무조건 규정이닝을 들어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팀 순위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과학대·곡성군청 협회장배 볼링 종합우승

한려대·고흥군청도 선전

전남과학대, 한려대, 곡성군청과 고흥군청 등이 전국 볼링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들은 최근 전주시 천일볼링경기장(남대부)과 라온볼링장(여일부)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

전남과학대는 금 3, 은 2, 동 1개로 남자 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과학대는 2인조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곡성군청이 금 2, 은 1, 동 1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개인전에서는 조민혁(2년)이 1위(937점), 김동현(1년), 유승호(1년)가 공동 2위(931점)를 차지, 전남과학대학교가 메달을 싹쓸이 했다.

2인조 경기는 한려대학교 김호진(2년), 송승민(1년)이 1794점으로 위덕대에게 아쉽게 밀려 2등을 차지했다. 여일부에서도 곡성군청 선수인 김현미, 이영승이 1743점으로 부산남구청에게 밀려 2위에 올랐다.

5인조 경기는 전남과학대가 4314점으로 3위,

여일부에서는 고흥군청이 423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개인종합 및 마스터즈 경기에서는 김동현이 3532점으로 개인종합 1위, 2362점으로 마스터즈 1위에 올랐다. 한려대 박대희(2년)는 2310점으로 2위, 여일부에서는 김현미가 3531점으로 개인종합 1위, 2278점으로 마스터즈 1위, 곡성군청 이영승 선수가 222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동현은 이번 대회 남대부에서 금 2, 은 1, 동 1개로 전남과학대학교 종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여일부에서는 김현미가 금 2, 은 1개를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신흥중 박예지 유도연맹전 우승

남중부 최성웅은 은메달

순천 신흥중 박예지(사친)가 초중고유도연맹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예지(1년)는 지난 20일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2021 하계전국초중고유도연맹전 여중부 -42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8강에서 김성원(파이널유도집)을, 4강에서 장인혜(경기체중)를 한판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박예지는 결승에서도 유하늘(북원중)을 한판 쿤히기로 꺾었다.

남중부 -66kg급에 출전한 최성웅(3년)은 8강과 4강에서 각각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고지훈(제주사대부중)에게 아쉽게 한판패를 당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유도회 김양호 전무이사는 “선수들이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줬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배들을 보고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와 올림픽출전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남구청 양궁 창단 첫 단체전 메달 수확

실업양궁연맹회장기 동메달

남구청 양궁팀이 창단 이후 첫 단체전 메달을 수확했다.

남구청은 21일 충북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인천 계양구청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이승운·임지완·이건희가 팀을 이룬 남구청은 16강전에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5-4, 8강에서 부산 사상구청에게 세트 스코어 5-1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

지난 3월 공식 창단한 남구청 양궁팀은 창단 첫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한국 남자양궁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5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전국 남·여 종합선수권 양궁대회에서 팀 막내 이건희가 은메달을 수확하며 메달 신고식을 했고, 지난달 예전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8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는 국가대표 이승운이 팀에 값진 금메달을 선사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승운은 지난 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전국 최고 권위의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



제32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남구청 양궁팀. 왼쪽부터 이현창 감독, 임지완, 이건희, 이승운. <남구청 제공>

대회에서는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자존심을 지켰다. 이승운은 최민선(광주시청)과 호흡을 맞춘 혼성단체전에서도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광주양궁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현창 남구청 양궁팀 감독은 “팀이 시즌 시작

과 동시에 출발에 준비가 부족했지만 지난 동계훈련에서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창단 첫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남은 전국체전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 남구를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패 뒤 4연승... 밀워키 50년만에 ‘NBA 챔프’

밀워키 벅스가 50년 만에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밀워키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피닉스 선스와 2020-2021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6차전 홈경기에서 105-98로 이겼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2패가 된 밀워키가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밀워키가 NBA 챔피언 왕좌에 오른 건 ‘전설’로 불리는 카림 압둘 자바와 오스카 로버트슨이 현역으로 활약하던 1970-1971시즌 이후 50년 만이다.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것만 해도 이번이 1974년 이후 47년 만이었던 밀워키는 긴 기다림 끝에 구단 통산 두 번째로 챔피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 시즌 정규리그를 동부 콘퍼런스 3위(46승 26패)로 마친 밀워키는 플레이오프(PO)에서 마

이애미 히트와 브루클린 네츠, 애틀랜타 호크스를 차례로 꺾고 서부 2위 피닉스(51승 21패)와 마지막 승부를 치렀다.

피닉스와 1, 2차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3차전부터 내리 연승을 달리며 반세기 만에 ‘우승 한풀이’에 성공했다.

NBA 챔피언 시리즈 전적에서 0-2로 뒤지던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밀워키가 역대 다섯 번째다. 한편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피닉스는 올 시즌 처음으로 4연패를 당해 구단 사상 첫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는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쿰보가 선정됐다. 이날 6차전에서 홀로 팀 득점의 47.6%에 달하는 50득점을 폭발했고, 14리바운드(5블록슛)를 곁들여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아이스 로드
4관	보스 베이비 2
5관	보스 베이비 2
6관	랑중
9관	랑중
7관 씨네케틀	쿠루엘라, 캔저링3: 악마가 시켰다, 워스, 더 레지드: 악령의 저주
8관 씨네케틀	아이스 로드, 발신제한, 옥스포드 살인사건, 나만 보이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